



## 후보 등록 첫날...민주, 텃밭 광주서 “정권 심판” 尹정부 맹폭

### 총선 D-19

김대중센터서 중앙당선대위 합동회의 ‘세 결집’  
이재명 “총선, 민주-국힘 아닌 정권과의 대결”  
김부겸 “광주 ‘열망’ 제대로 답하지 못해 죄송”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이 ‘텃밭’인 광주를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정부·여당을 맹폭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관련기사 3·4면

이재명 대표(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는 이날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민주연합 선대위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이대표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과 나라를 망친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이라며 “물거품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입찰·갑질·과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 국민을 업신여기는 무리배 정권을 심판하는 날,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20일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를 “열흘 전 호주로 ‘도주 출국’한 이종섭 호주대사가 ‘도주 입국’을 했다고 한다”며 “이종섭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표는 “이종섭 대사가 행사 때문에 들어왔는데 국민의 뜻을 존중해 귀국한 것처럼 또 교언영색하고 견강부회하고 있다”며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대적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 도주 사태라는 중대 사건에 대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채상병 국조, 채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등 쌍특검·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어렵도 없는 소리”라며 “이제 시작이다. 핵심은 윤석열”이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윤해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되는 해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같이 감옥을 살면서 모시고 40년 이상을 정치를 해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이번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 기강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날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 정부 4기를 바라는 광주의 열망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유일하게 사과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등 세번의 민주 정부를 만들어준 곳이 광주였는데 민주 정부 4기를 바라는 광주의 열망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호남에 계신 민주당의 선배 동지 여러분들에게, 또 정말 헌신적이고 애김없이 지지를 보내 주신 광주시민·전남도민에게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이 예전과 같은 뜨거운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불신을 신뢰로 바꿀 유일한 길은 길 잃은 정치의 복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를 딛고, 민주 정부 4기를 꼭 만들어 내겠다. 대한민국을 맡겨도 될, 책임질 수 있는 차기 수관·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바로 그 일을 해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경기자



서부권 지역 리더들이 참여하는 학습·교류의 장인 광주매일신문 '제1기 전남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이 21일 오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렸다. /김충식기자

## 광주매일신문 ‘전남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개강

올해 서부권 첫 선...지역 CEO·리더 대거 참여  
마형렬 회장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학습의 장”

광주매일신문 '제1기 전남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이 21일 오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는 마형렬 광주매일신문 회장과 김광아 광주시 양궁협회장, 정인수 남양건설 대표이사,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강성휘 전남사회서비스원장, 송진호 전남체육회장,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반갑다 프로야구” 내일 팡파르

KIA, 광주서 키움과 개막전

2024 프로야구가 23일 개막한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3월에 개막하는 2024 KBO리그는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키움의 공식 개막전과 함께, LG-한화(잠실), SS G-롯데(문학), KT-삼성(수원), 두산-

NC(창원) 경기를 시작으로 팀당 14경기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16면  
11월 예정된 프리미어12대회 참가를 대비해 올해 개막 시기는 일주일 앞당겨졌다. 지난해 정규리그 6위로 가을야구 무대 진출에 실패한 KIA는 신임 이범호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팬들을 위해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 임기 내 반드시 우승하겠다”며 자오를 다지고 있다.

### 제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 제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요강

- 지원지역**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 모집인원** 00명
- 교육기간** 2024년 3월 26일(화) ~ 2024년 12월 종강(연 16회)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7시~8시30분, 6시부터 식사)
-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 전형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4년 3월 15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 주요강사진 (예정)



## 제11기

#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